시 론

소쩍새는 얼마나 더 울어야 하나

나 의 갑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아이들 같은 자연, 자연 같은 아이들. 시인은 늘 자연과 아이들을 중심에 놓는다. 가만있는 자연을 그윽이 들여다보며 우리네 사람살이에 접목하는 솜씨가 탁월해 소월과 백석을 잇는 시인이란 평을 듣는다. '섬진강' 연작시로 이름을 날려 '섬진강 시인'이란 애칭을 갖고 있는 그는, 김용택이다.

시인의 펜에 소쩍새가 날아든다. '너를 부르러 캄캄한 저 산들을 넘어 다 버리고 내가 왔다/ (중략) / 하얀 찔레꽃에 꽃잎만/ 봄바람에 날리며/ 그리운 네 모습으로 어른거리는/ 미칠 것같이 푸르러지는/ 이 푸른 나뭇잎 속에/ 밤새워 피를 토하며 내가 운다'에는 '소쩍새 우는 사연'이란 제목이 붙어 있다. '오늘 처음 소쩍새가 울었습니다/ 돌아눕고 돌아눕다 잠들었습니다/ 내 야원 어깨에 달진 얼굴 하나/ 적막하게 묻어 있습니다'엔 '슬픔'이란 이름표가 달려 있다.

시인은 뭔 일로 피를 토하며 밤새껏 울고, 돌아눕고 돌아누웠나? 한낱 날짐승에 지나지 않은 그 자(者)에게 통째로 마음을 빼앗겨 가면서 말이다. 타고난 울림통 때문일 것이다.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쉬지 않고 '소쩍 소쩍' 또는 '소쩍다 소쩍다' 하고 울어대는 소쩍새. 그 자의 목소리는 몹시 처연하다. 산밑에 사는 나는 그 자의 목청을 들어 봐놔서 잘 안다. 술 마시고 밤늦게 귀가할 때, 혹은 야밤에 밖에 나와 '도둑담배'를 피울 때 그 자의 육성을 만나곤 한다.

이상도 하지, 시인의 소쩍새가 내 눈엔 '광주'로 들어온다. '그 봄'을 울고 있는 것 같다.

1980년 5월, 26일치 밤이 가고 27일치 밤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상무충정작전'이라 이름 붙인 계엄군의 광주재진입작전이 개시된 건 27일 밤 1시였다. 모처럼 하숙집에 들어가 세상모르고 잠에 취해 있던 나는, 용수철이 튀듯 일어났다. '광주'가 피를 토하며 울고 있었다. "광주시민 여러분, 지금 계엄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광주를 사수할 것입니다.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스물한 살 박영순(여)은 도청 방송실에서 광주의 새벽을 깨웠다. 온 광주가 다 들었다. 그 처절한 외침은 소쩍새보다 진했다. 시계를 봤는지 안 봤는지는 기억에 없다. 3시쯤 되었을 거다. 이로써 나(광주일보 전신인 옛 전남일보 4년차 기자)는 '광주'에 두 개의 죄를 지었다. 쓰지 못한 죄, 그날 새벽 '광주'의 부름에 응하지 못한 죄. 돌아눕고 돌아누우며 그 새벽을 뒤척였을 뿐이다.

그 새벽, 그 '소쩍새' 이후 광주는 죽는다. 아무도 광주를 열지 못한다. 신문과 방송엔 큼지막한 쇠가 채워졌고. 그니까 그게 광주의 최후의 말이었다.

지난 3일 광주여성재단에서는 '서른아홉의 5·18, 마흔의 5·18'이란 이름의 워크숍이 열렸다. 이명자 오월어머니집 고문, 정현애 오월어머니집 이사장, 이윤정 오월민주여성회장, 박영순 오월민주여성회 부회장, 이춘희 광주 북구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등 '오월여성들'이 여성의 5월을 이야기했다. 혹독한 고문의 추억, 잔인한 감방살이, 지독한 감시와 탄압, 트라우마 등을 증언하며 울먹거리자, 냅킨 몇 장씩이 긴급 배포되었다. 플로어 질문도 눈물을 섞었다. 맨 나중 순번인 나는 죄가 하나 더 있음을 알아차렸다. '고통을 받지 않은 죄'. 내 말의 시작은 그래서, '부끄럽다'였다.

광주의 비극은 27일 새벽 1막으로 끝나지 않는다. 연이어 2막, 3막이 오른다. 80년 광주를 실패한 뒤 87년 6·10민주항쟁을 승리한 것까지가 '광주 2막'이라면, 전두환·노태우 등 전두환그룹(신군부)을 나라가 잡아 가둔 90년대까지는 3막이 되겠고, 그 이후는 4막이라 하겠다. 자꾸 광주를 건들어 쌓는 지만원이 등장한 것도, '전두환 회고록'이 나온 것도, '5·18 망언 3인방'이 광주에 불을 놓은 것도 4막인데, 요것들 다 '광주테러'다. 저들의 반격은 놀랍다. 그냥 '반격'으로 읽으면 손해가 오고 '공작'으로 읽으면 득이 될 거다. 큰 코 다칠 수 있을 거 같아 해두는 말이다.

지금, 서른아홉 번째 새벽이 우리 앞에 서 있고, 광주의 진실은 벌렁 뒤집힌 채 우리 앞에 서 있다. 광주를 거꾸로 그린 그림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이다. 딱 하나만 적시해 볼 거나. 국군보안사령관 전두환은 말한다. "(광주사태) 당시 나는 계엄군의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시하거나 실행하기 위한 그 어떤 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었고, 참석한 일이 없다"고 회고록에서 단호하게 잡아뗀다. 하지만, 전두환과 그의 보안사의 5·18 행적들을 발라내다 보면 '빨간 거짓'임이 드러난다. 전두환이 5·18 기간 중 국방부에서 매격일로 열린 '광주사태 대책회의'에, 자위권 발동을 결정한 국방부회의에, '광주재진입작전 최종 결정 회의' 등에 참석한 것이랄지, 최규하 대통령을 광주에 내려 보내 선무방송을 하도록 압박한 일이나, 공수부대한테 6천300만원이란 거액과 함께 소 7마리를 보내 '잔치판'을 열어준 것 등은 뭐란 말인가. 요런 것들이, 자신이 지시해 비밀리에 만든 '제5공화국 前史' 등을 통해 40개 넘게 확인되고 있음이다. 이래도 '해당 사항 없음'인가. 그는 그러므로 5·18을 총지휘한 것이 되는 것이며, 이럴진대 그가 '5·18 총사령관'이 아니라고 써먹을 논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소쩍새가 얼마나 더 섧게 외쳐야, 그는 '숨겨둔 광주'를 '선포'할 것인가.

문화난장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백주년을 맞아

홍 인 화
전 광주시의원·국제학 박사

3·1운동은 주권이 민에게 바뀌는 계기가 된 사건이다. 당시 33인이 서명한 3·1독립선언서가 서울 파고다 공원에서 낭독된 후 전국 방방곡곡 그리고 만주 연해주 등 해외에까지 퍼져 나갔다. 수많은 사람들이 만세시위에 참여하며 독립의지를 표방했다. 광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광주 3·1운동의 전모를 알려주는 자료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것은 아쉬운 현실이다. 지난 10여년 동안 민간차원에서 양림동과 고려인마을에서 3·1운동 재현행사가 진행돼 온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다.

지난해 9월 뜻을 같이 하는 몇몇 사람들이 준비모임을 통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 광주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했다. 지속적인 모임을 통해 우선 광주 3·1운동 관련 세미나를 준비했다. 더불어 100주년 기념행사도 고민했다. 재현행사와 학술세미나를 결정했다. 3월1일 광주시 주관으로 3·1운동 100주년 기념식과 재현행사가 진행됐다. 재현행사는 집결지를 3군데로 나눠 일반 시민들 1천여명은 광주일고 앞 네거리(금남로 5가역 1번 출구)에서 교회 관계자들 2백여명은 세무서 앞에서 고려인들을 비롯해서 외국인 2백여명은 대인시장 앞에서 모여 약 1천5백명이 금남공원에서 합류하여 본격적인 재현행진을 시작했다.

일본군, 말을 탄 일본군, 총기류 발사, 삐라를 살포하고 시민들은 그 당시 복장을 하고 '조선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퍼포먼스를 하면서 금남로를 행진하고 기념식에 참여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이 났다고 하고 광주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고 하면서 재현행사를 참여하는 것에 만족도가 높았다. 세심비를 행렬에 합류하기도 했다. 광주선언을 낭독하고 기념공연을 보는데 3·1운동, 광주학생독립운동, 4·19, 5·18, 촛불집회, 통일한국까지의 퍼포먼스도 '광주정신'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든 작품이라고 입을 모았고 이후 한 번 더 공연을 하고 대학생들의 문화공연과 주변행사(부스 등)가 진행되었다. 소녀상도 광장에 설치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해 시청로비에서 '연해주 고려인 항일독립운동 전시회'(4월10-4월17일)를 펼쳤다.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100주년을 보내면서 앞으로 할 일은 첫째, 광주 3·1운동에 대한 재정리를 하고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지 못한 분들을 찾아내어 서훈을 받게 하는 일이다. 둘째, 광주·전남 항일·독립운동 기념관이 건립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광주·전남은 우리나라 최대 항일독립운동의 현장이다. 한말 의병과 3·1운동, 광주학생독립운동이 그 증거다. 3·1운동 이후 최대 항일독립운동이 광주학생독립운동이었다. 이처럼 광주·전남은 전국 최대의 항일독립운동지다.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기념비를 세우는 것도, 역사관이나 기념관을 건립하는 것도 그 한 방법이다.

셋째, 항일독립운동지임을 알리는 표지석을 현장에 세우는 거다. 2018년부터 시에서 표지석을 세우는 작업을 시작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넷째,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 중국·인도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중동지역 민족운동까지 영향을 미친 민족 최대의 3·1운동의 명칭을 3·1혁명으로 바꾸는 정명운동도 전개해야 할 것이다. 3·1정신을 잘 계승하는 것이 민족의 정기를 살려 광주의 내일, 대한민국의 내일을 올바로 세우는 일임을 잊어선 안 된다.

기 고

문화유산인 전통사찰을 화재로부터 지키자

이 성 우
광주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

우리나라 사찰은 세계 유산에 등재될 정도로 하나같이 최고의 경관을 자랑하는 문화유산으로 한국 건축의 독창성을 보여주고 있는 보물들이 대부분이다. 이제 사찰에서는 식사와 숙박은 물론 산사생활을 통해 불교의 수행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개방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연등 만들기, 사찰음식 만들기 등 다채로운 불교문화를 체험 가능하도록 문화관광 상품으로 국내외 할 것 없이 인기 있지만 불특정 다수인들의 출입이 많은 만큼 화재 발생 요인도 높아지고 있다.

부처님 오신 날인 석가탄신일을 전후해서 요즘 사찰분위기는 갖가지 연등을 달아 부처의 탄생을 추가하는 봉축행사가 전국 사찰에 열리고 있으며 불교신자가 아니더라도 관광을 위하여 많이 찾고 있어 축제분위기 속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작은 불씨하나라도 소홀히 취급해서는 안 된다.

사찰들의 특징은 대부분 위치가 도심에서 비교적 먼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진입도로가 협소하거나 경사가 비탈진 곳에 자리 잡고 있어 응급환자 또는 화재가 발생할시 에는 소방차의 출동에 더욱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사찰들은 거의 목조건물로 건축되어 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순식간에 잘 탈 수 있는 형태이며 방염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에 전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면 된다.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소방본부에서는 특별히 전통사찰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점검 등 화재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중요사찰에는 화재 발생시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방차를 배치하기도 하지만, 관계인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관계인들이 소규모의 인원일지라도 자체적으로 자위소방대를 조직해 실전처럼 꾸준히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초기 소화를 할 수 있도록 대응 능력 역량을 강화한다든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기 옥내 소화전등의 소방시설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그리고 소화용수들의 확보 상태는 잘돼 있는지, 발화시에는 인접소방서와의 협력체계를 통해 신속히 출동 진압할 수 있도록 신고 및 협력 체계들 등을 점검 할 필요성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사찰을 출입하는 방문객의 실화나 방화에 대한 경계대책과 대응책을 나름대로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을 전후로 차량들이 한꺼번에 몰려 불법주차로 인해 소방차의 진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소방차의 진입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도로상의 장애물 제거까지 항상 주의하여 안전요원을 전담 배치하는 것도 나름대로 하나의 안전 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사찰은 규모에 관계없이 사찰이 지닌 문화적 가치는 이루 말할 나위 없이 귀중한 민족문화의 유산으로 국보나 보물 문화재들이 많이 있어 우리의 자랑이며 영원한 보물이지만 요즈음 같이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 촛불 등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찰현장에서는 자칫하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

화재는 예방이 최우선임을 감안하여 우리의 문화유산인 전통사찰을 화재로부터 지켜 자손만대 후손들에게 길이 남겨둬야 한다.

社 說

광주시 '이용섭표' 대표산업 육성 기대 크다

광주시가 포용적 혁신성장을 일궈낼 '이용섭표' 11개 대표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이용섭시장은 올해 초 난항을 겪던 광주형일자리 협상이 순조롭게 매듭짓게 되자 "이제는 '이용섭표' 지역발전 청사진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시장이 제시한 민선7기 광주 대표산업은 ▲친환경자동차산업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광융합산업 ▲에너지 및 수소산업 ▲의료 및 헬스케어산업 ▲스마트뿌리산업 ▲인공지능 및 드론산업 ▲5세대 이동통신(5G) 기반 정보통신기술(ICT)산업 ▲문화콘텐츠산업 ▲관광산업 ▲김치 및 음식산업 등이다.

이들 대표산업은 지역의 축적된 기술·인력·인프라 등의 역량을 결집할 경우 급변하는 기술혁신시대에 대응하면서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산업,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수소경제·빅데이터 관련 산업,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신성장 산업군 중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선정된 것이어서 지역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광주의 산업비전 및 전략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타 지역과 비교우위를 통한 선점효과를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11개 대표산업 가운데 광융합산업·문화콘텐츠산업·관광산업·김치 및 음식산업은 광주가 꾸준히 육성해온 전략산업으로 잠재력이 큰 분야이다. 또한 친환경자동차·에어가전 및 공기산업·의료 및 헬스케어산업·스마트뿌리산업·인공지능 및 드론산업·5세대 이동통신(5G) 기반 정보통신기술(ICT)산업 등은 4차 산업혁명시대 신산업분야로 높은 성장 가능성이 기대된다.

아울러 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전략이다. 시는 3대 추진전략으로 노사상생도시 정착을 위한 저비용 고효율 산업환경 조성, 인공지능 기반 산업융합단지와 데이터 플랫폼 구축, 양질의 일자리 창출 중심의 산업생태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적절한 대응전략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들 대표산업이 제대로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광주시의 세밀한 지원노력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용섭 시장의 행정 리더십에 달렸다.

시내버스 관계자 머리 맞대고 조속한 대책 세워야

광주·전남지역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을 앞두고 있다. 시내버스 파업 움직임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노조측이 임금 감소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광주 지역 한국노총 버스노조는 95%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오는 15일 총파업 참여를 가결했다.

광주지역 한국노총 버스노조원은 1천444명으로 이들이 파업에 참여하면 9개 버스회사의 630여대의 버스 운행이 중단된다고 노조 측은 보고 있다.

전남지역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들은 52시간제 시행에 대비해 근무 시간·일수를 시내버스는 하루 16시간·한 달 15일 근무에서 근무 일수를 나흘 줄이거나, 하루 8시간·한 달 22일 근무로 변경하는 등 주 40시간 근무를 요구하고 있다. 농어촌 시군버스는 현행 하루 13시간·한 달 18일 근무를 1일 줄여 52시간에 맞출 것을 주장한다.

버스노조의 주장은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버스업체의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면 버스기사 월급이 최소 6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이상 줄어든다"며 반발하고 있다. 물론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문제는 노사협상마저 여의치 않다. 이번 협상은 예년과 달리 주 52시간 근무제가 관건이어서 사용자 측도 운신의 폭이 매우 좁기 때문이다.

실제 광주지역 시내버스 사측은 매년 적자가 60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노조의 요구대로 임금을 올릴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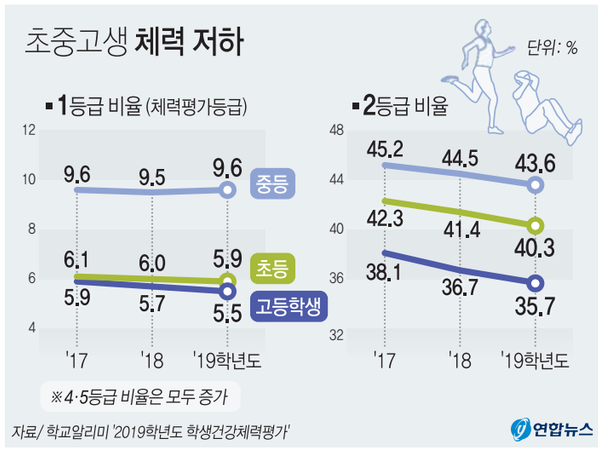
정부와 자치단체도 원론적인 대책만을 주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각 지자체가 요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대책측면에서는 버스기사 인력 충원을 최대한 지원하며 지자체에 요금 인상을 권고하겠다고 방침이다. 반면 지자체는 요금 인상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중앙정부가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자칫 버스 이용객들만 큰 불편이 우려된다. 버스는 대표적인 서민 교통수단이다. 노조와 버스업체, 지자체 및 정부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픽 뉴스

초·중·고생 체력 갈수록 저하…1·2등급 줄고 4·5등급 늘어



초중고생 체력이 점점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2019학년도 학생건강체력평가 결과를 보면 초중고생 모두 1등급과 2등급 비율은 줄고 4등급과 5등급 비율은 늘었다.

체력평가에서는 심폐지구력, 근력·근지구력, 순발력, 유연성, 체지방 등을 측정하며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긴 뒤 점수대에 따라 5개 등급을 부여한다. 초등학생은 체력평가 1등급과 2등급이 2017학년도 6.1%와 42.3%, 2018학년도 6.0%와 41.4%, 2019학년도 5.9%와 40.3%로 감소했다. 반면 4등급과 5등급은 2017학년도 5.7%와 0.4%, 2018학년도 6.3%와 0.4%, 2019학년도 7.4%와 0.5%로 증가세였다. 같은 기간 중학생도 1등급이 9.6%→9.5%→9.6%, 2등급이 45.2%→44.5%→43.6%로 유지되거나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 4등급은 6.9%→7.4%→8.2%, 5등급은 0.5%→0.6%→0.8%로 늘었다. 고등학생도 1등급과 2등급은 각각 5.9%→5.7%→5.5%와 38.1%→36.7%→35.7%로 줄어들고 4등급과 5등급은 11.8%→12.6%→13.6%와 1.3%→1.5%→1.7%로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 3월 학생들 건강악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는 2023년까지 '모든 학생을 보다 건강하게'라는 비전 아래 ▲건강증진 교육 내실화 ▲건강서비스 확대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지원체계 강화 등 4개 중점과제를 실행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 장 馬亨列 사 장·발행·편집인 南成淑 주필 朴俊洙 편집국장 吳星洙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체육부 650-2065	광고국 650-2072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사진부 650-2080	경영지원국 650-2010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논설실 650-2006	기획사업국 650-2079	업무국 650-2019
문화부 650-2067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 가10(日刊)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